

2023 전북 위케이션 사업, 큰 호응 속 마무리

‘머무는 곳이 일터’가 되는 문화 정착

▲올해 전북 위케이션 참여 1,008명 목표 달성하고 함께 성장리 마감

지난 8월부터 선보인 전북위케이션이 지난 15일 150여개 기업, 1,008명이 최종 참가인으로 집계된 가운데 내년 상품 출시에 대한 큰 기대감을 안고 성황리에 마감됐다.

올해 선보인 전북위케이션의 성장동력은 전문문화, 해양 휴양, 산악휴양이라는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숙박과 숙소 주변에서 도보로도 이동 가능한 근거리형 공유 오피스의 제공, MZ세대 참가자를 위한 전북투어패스 3일권 제공으로 체류 기간 중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데 참가자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9월 전통문화형 전주에서 2박 3일의 위케이션에 참가한 윤모(23)씨는 “전주에 머물며 서화 예술마을을 도시간에서 일하고, 쏘카를 이용해 익산 촌포까지 둘러봤다. 타 지역 위케이션까지 올해만 2번의 위케이션을 즐기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 망설여졌던 전북에서 도서관이라는 이색 공간에서 책도 읽고 일도 하고 주변에 몰랐던 소도시의 작은 마을까지 전북투어패스까지 알차게 써가며 여행하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며 전북위케이션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전북위케이션이 성공한 요인이 이

것 뿐만이 아니다.

국내 최초로 캠핑카 대여 전문기업 차놀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숙박시설 절대적으로 부족한 무주에서도 전체 참가자 220명 중 약 18%인 37명의 참가자들이 캠핑카를 이용해 위케이션 즐겼다.

캠핑카를 이용한 위케이션 상품은 2024년도 정부의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도입과 함께 외국인 위케이션족의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

티문과 함께 특수고용직군 근무자의 전북위케이션 예약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상품을 출시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리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체 참가자 중 약 15% 가량인 140명의 특수고용직 관계자들이 전북위케이션을 찾아 전북의 멋과 흥을 즐기고 돌아갔다.

상당직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해양 휴양형 군산에서 2박3일을 보낸 이

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3인원 이동용 카카오톡으로 상담 가능한 비대면 컨시어지센터의 운영 등 국내에서 위케이션의 후발주자이지만 그 동안 타 시도에서 위케이션 참가 경험자, 위케이션 용역사 등과 협력하고 자문을 받아 전북위케이션만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우수한 평가를 참가자들로부터 받았다.

산업 각 분야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업계를 통해 일자리가 생겨나고 위케이션이 지역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전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49)씨는 “한옥마을에서 숙박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전북위케이션을 알게된 후 평일 커피숍 활성화를 위해서 3층 공간을 내년에는 과감히 빔프로젝트를 갖춘 세미나실 겸 공유 오피스로 변경하고, 위케이션 전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유휴공간 활성화를 아이디어를 모아 볼 예정이다.”며 위케이션 생태계 구축에 직접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선보여... 현재까지 1008명 참가 체류 기간 중 참가자 자율성 보장이 큰 성공 요인 간소화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참가 편의성 높아

유로운 이동과 숙박 그리고 무선인터넷이 장착된 공유 오피스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캠핑카를 활용해 전북 14개 시·군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머무는 곳이 일터가 되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이동형 위케이션 상품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전북위케이션 국내 최초로 e커머스 연계 프로모션 첫 시도

전북은 위케이션 시장의 경쟁속에서도 전국에서 60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학원강사, 문화예술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시장을 두드리고,

모(36)씨는 “처음 국내에 위케이션이 도입되고 참가하고 싶어 여러 시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출 서류라 하는 벽에 막혀 이곳에도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북위케이션은 간소화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사업주와의 근로증빙 가능한 서류만을 제출해 위케이션 참가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며 전북위케이션이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돼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외 전북위케이션은 카셰어링 전문기업 쏘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

▲도내 14개 시·군 확대 및 위케이션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성장 견인

최근 지방 소도시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소멸이다.

전북위케이션은 지난 10월 도내 14개 시·군에서 위케이션에 활용 가능한 숙소(42개), 공유 오피스(21개) 1차 발굴 작업을 완료했다.

전북도의 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과 2024년도에도 계속하여 전북만의 고유한 색을 갖춘 숙소, 공유 오피스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 가능하도록 14개 시·군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경성권, 충청권, 호남권의 대도시들에 위치한 기업들과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위케이션과 관련된 숙박, 공유 오피스, 외식, 문화, 관광

산업 각 분야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업계 스스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생겨나고 위케이션이 지역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전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49)씨는 “한옥마을에서 숙박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전북위케이션을 알게된 후 평일 커피숍 활성화를 위해서 3층 공간을 내년에는 과감히 빔프로젝트를 갖춘 세미나실 겸 공유 오피스로 변경하고, 위케이션 전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유휴공간 활성화를 아이디어를 모아 볼 예정이다.”며 위케이션 생태계 구축에 직접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케이션 시장은 공공의 영역만이 아닌 각 지역의 민간 사업자들이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평일 체류형 관광객 증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숙소, 음식, 문화체험 등 관련 업종들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사업을 위해 14개 시·군 민·관 관계자들도 네트워크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등 활동을 준비해 타 시도에 비해 한 발 더 빠른 홍보 활동으로 기업 및 특수고용직 대상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지역순환경제연구회 예산 전통시장 혁신사례 살펴

전북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대표의원 오은미 의원)는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구를 목적으로 충남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은미 대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상인 육성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 의원은 “예산 전통시장은 지난 2020년 예산군과 (주)본코리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상인회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처한 가운데 예산군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감소 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오은미 대표의원외 서난이 연구위원을 비롯해 권오안·김대영·김동구·김희수·나인관·최형열·박정규·윤정훈·장연국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尹정부, 해외순방 아닌 국정운영 성찰 필요”

민주 안호영 의원, “여야 협치로 예산 처리... 전북 선거구 축소 단호히 거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군)이 장수군청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원주와 진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연이어는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1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역의 주요 사업 성과와 내년 총선 준비 계획 등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2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에 대해 깊은 성찰과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 또 다시 해외 순방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남겨진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해결해야 할 일은 하고 그런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며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0%에 육박하는 데, 장수부여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수부여에 이어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겨 2024년 예산 처리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경제에 필요한 여러 사업과 민생 예산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로 완결시켜야 하지만, 장차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고 했다.

내년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도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법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상환이라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예결특위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었다는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안 의원은 “다음주부터 원주를 시작으로 3일간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예정이나,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지지부진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성의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돼 계획했던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가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전북지역의 특별성과 대표성을 무시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최종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은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15일 최종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장계 르네상스-Red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 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1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4년 동안(2024년-2027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계면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 및 창업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장계시장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 의원은 “공모 선정은 최후식 장수군수 뿐 만 아니라 장수군민과 한마을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가예산 확보 아쉬움 없도록 최선”

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현안 해결 노고 격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5일 국가예산 위원회의를 겸한 간부회의를 갖고,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주말이 기재부 증액 심사의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으므로 주말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끈기있게 기재부와 국회 실무협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유치 성공, 내년도 본예산 확정,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주요한 성과를 거둔 직원과



김관영 지사는 2024년 사자성어로 백년대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년대계의 사자성어에는 전라북도가 128년의 역사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임

전 청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성과가 도민의 기세를 살리고 자신감을 얻어 다시 전북을 전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4년 사자성어로 백년대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년대계의 사자성어에는 전라북도가 128년의 역사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임

하지는 각오가 담겨 있다.

또한 김 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동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갖고 유관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지구 시범지역 선정계획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도와 관련 전담팀(TF)을 구성한만큼 더 적극적으로 시범지역 선정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방안’을 전북도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학교 WONDERLAND WKU

☑ 원광대학교 2024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
2023. 12. 18(월) ~ 12. 22(금)

☑ 2024학년도 정시모집(가/나/다군)
2024. 01. 03(수) ~ 01. 06(토)